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는 성경공부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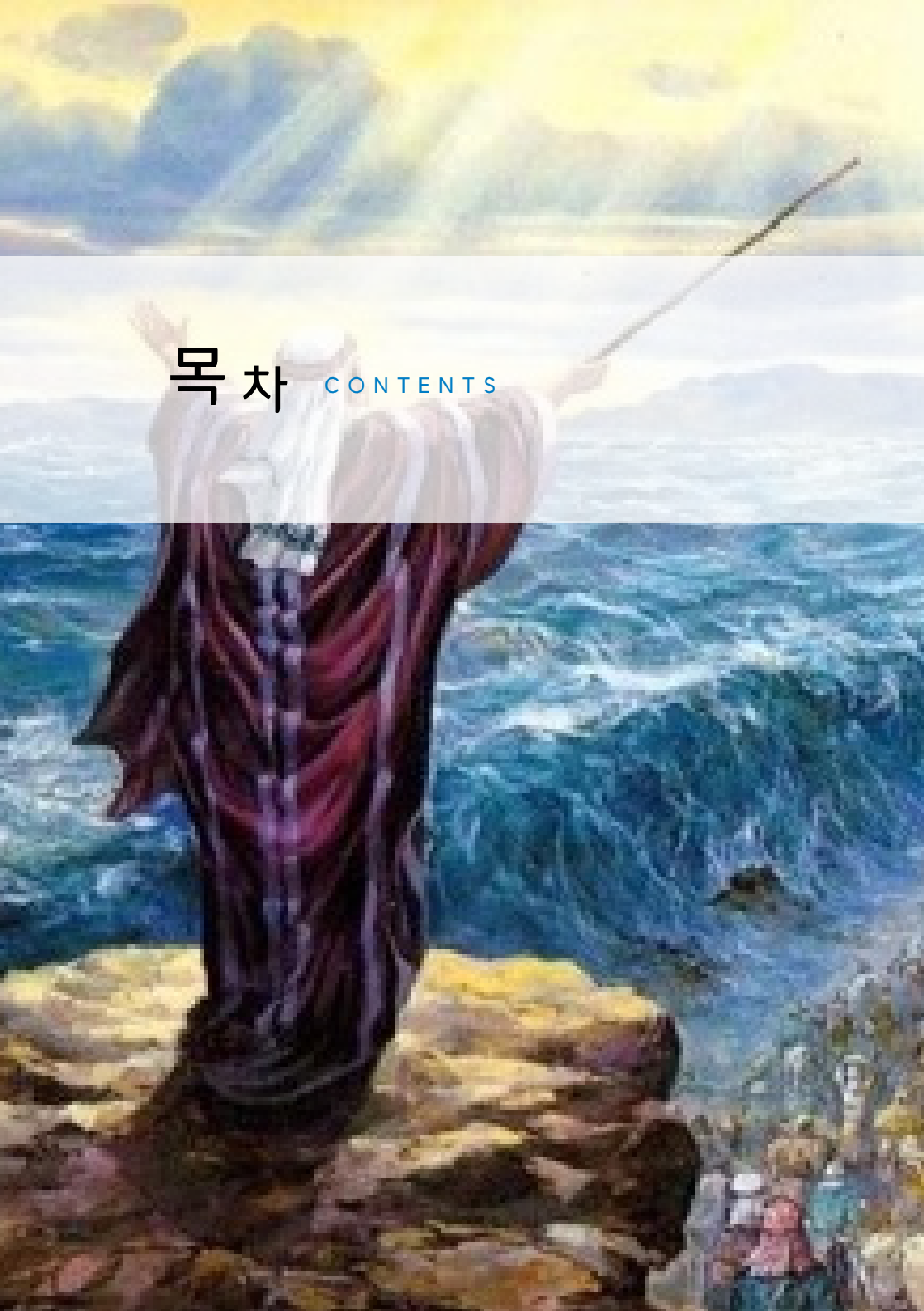
출애굽기 영맥풀이

출애굽기를 통해 성막을 배운다

"출애굽기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합니다."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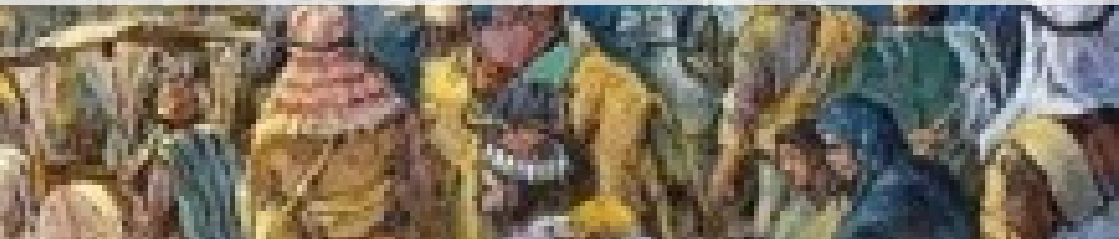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목 차 CONTENTS



서론	출애굽기 개요 _ 4
제 1 장	이스라엘의 고난과 모세 탄생 _ 19
제 2 장	모세에게 임한 소명과 계시 _ 30
제 3 장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_ 40
제 4 장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 _ 50
제 5 장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통한 구원 _ 59
제 6 장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_ 68
제 7 장	광야의 연단 _ 77
제 8 장	거룩한 임재와 십계명 _ 86
제 9 장	율법을 통한 거룩한 백성의 삶 _ 95
제 10 장	성막의 건축 양식 _ 104
제 11 장	제사장 위임식과 의복 _ 115
제 12 장	성막의 기구와 기술자 _ 125
제 13 장	금송아지 사건과 중보 _ 133
제 14 장	언약의 갱신과 봉헌 준비 _ 142
제 15 장	성막의 완성 _ 151





서론

/

출애굽기 개요

서론 출애굽기 개요

도입내용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과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노예 상태에 있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강력한 손으로 건져내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는지를 쉽고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1. 제목 및 저자와 기록 배경

가. 제목과 책의 시작

(1) 히브리 제목 '이름들'<쉐모트>의 의미와 구속사의 연결

a. 이름들의 중요성과 언약의 연속성

- 출애굽기의 히브리 제목은 '이름들'<쉐모트>입

니다.

- 이는 야곱의 가족 70명의 이름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명단(출 1:1)에서 유래하며,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 애굽 노예로 전락한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특별한 백성(이름)임을 강조하며, 구속사의 연속성을 선포합니다.

[출 1:1]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b. 모세의 등장과 소명

- 이 이름들 속에 모세라는 구원자가 등장하여 이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냅니다.
- '이름들'은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여호와의 군대'로 새롭게 명명(이름 지어짐)되는 역사적 드라마를 예고합니다.

(2)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구원 사역

a. 주권적인 구원의 시작

- 출애굽기는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능력으로 구원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출 2:25)을 기억하시고, 노예 상태에 있는 그들을 강한 손으로 이끌어 내시는 구원 역사의 주체이십니다.

[출 2:25]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b. '여호와' 이름의 계시와 권능

-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하시고(출 3:14), 이 이름의 권능으로 바로의 강악함을 깨뜨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 이는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분이심을 재확증합니다.

[출 3: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 기록 목적과 이스라엘의 정체성

(1) 기록 배경과 언약 백성의 영적 혼란

a. 노예 생활의 영향과 영적 빈곤

- 출애굽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선포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 400년간 애굽의 다신교 문화와 노예 근성에 젖어 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b. 구원의 정당성과 하나님의 능력 확증

-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행위가 단순히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신실한 성취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 바로의 강박함과 애굽의 모든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백성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
니다.

(2)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 기초와 소명

a. 제사장 나라로서의 소명 확립

-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노예 집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출 19:6)을 확립하도록 가르칩니다.
- 그들의 삶의 목적은 애굽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율법을 지키며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중보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음을 명시합니다.

b. 하나님 임재의 중심: 성막

- 성막 건축의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들의 삶과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 19: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2. 핵심 주제와 구원의 본질

가. 핵심 주제: 구속과 언약의 확증

(1) 하나님의 구속(Redemption)과 대속의 원리

a. 구속의 결정체: 피의 언약

- 출애굽기의 핵심은 '구속(Redemption)'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피의 대가를 요구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
- 이 구속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대속적인 희생(피)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은혜임을 확증합니다.

b. 새 언약의 예표

- 유월절 어린양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영원히 구원받을 것임을 가장 분명하게 예표합니다.

(2) 언약의 회복과 율법의 기능

a. 율법을 통한 거룩함 요구

-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십계명과 언약법전)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의 규범이었습니다.

b. 순종과 불순종의 반복

- 이스라엘은 율법 수여 직후 금송아지 숭배(배신)를 통해 언약을 파기했으나,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선포로 인해 언약을 재갱신했습니다(출 34:6-7).

[출 34: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 34:7]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을 자녀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나. 구속사의 청사진: 예배의 설계도

(1) 하나님 임재의 중심: 성막과 예배의 공간

a. 하늘 성소의 모형

- 성막은 단순히 임시 거처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모형이자(히 8:5), 하나님이 죄인과 만나 교제하시는 장소였습니다.
- 성막은 번제단(희생), 물두멍(정결), 성소(교제), 지성소(임재)의 순서적 구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b. 참된 제사장의 예표

-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출 29장)과 그들의 의복은(출 28장) 영원한 대제사장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중보 사역을
예표합니다.

(2) 구속사의 최종 목표: 임마누엘

a. 임재의 완성

- 출애굽기의 최종 목표는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쉐키나)이 임하는 것입니다 (출 40:34).
- 이는 구약의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을 최초로 물리적인 공간(성막)을 통해 완성한 사건입니다.

[출 40:34]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b. 신약에서의 완성

- 이 성막의 임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요 1:14)과 성도의 몸(고전 3:16)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로 이어지며 구속사를 완성합니다.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3. 구조와 내용의 흐름 (구원과 임재의 연속성)

가. 구조적 원리: 구원(출애굽)과 율법(시내 산)의 이중 구조

(1) 구원(출 1장~18장): 애굽 탈출과 구속의 역사

a. 출애굽의 역사적 흐름

-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는 역사적 구원의 과정을 다룹니다.
- 재앙, 유월절, 홍해 기적, 광야 공급 등 구속사의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전개됩니다.

b. 구속사의 핵심 교훈

- 이 부분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주권에 달려 있음을 가르치며,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건져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2) 율법과 예배(출 19장~40장): 언약 체결과 거룩한 삶

a. 법규와 제도의 수여

- 시내 산에 도착한 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는 데 필요한 율법(십계명, 언약 법전)과 예배 제도(성막, 제사장)를 받는 법적, 제도적 구원의 과정을 다룹니다.

b. 성화의 핵심 교훈

- 이 부분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화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나. 내용적 구분: 대결과 교제의 드라마

(1) 대결 드라마: 바로와의 권능 대결 (출 1장~15장)

a. 세상 권력과의 충돌

-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바로(세상 권력과 우상의 상징)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권능 대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 바로는 교만과 강박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재앙은 이 대결의 최종적인 승패를 가르는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b. 완전한 승리와 해방

- 홍해 사건은 이 대결의 최종적인 승리이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교제 드라마: 하나님과의 언약적 만남 (출 16장~40장)

a. 광야에서의 시험과 언약 준비

-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 만나, 반석의 물, 아말렉 전투 등은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과 보호를 계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b. 임재의 완성

- 율법 수여와 성막 건축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백성과 거룩하게 교제하기 위한 길을 마련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성막은 대결 드라마 이후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게 된 화해와 교제의 상징입니다.

4. 출애굽기의 영적인 의미

가. 모든 구원론의 뿌리

(1) 기원론적 교리

a. 예배의 기원과 성화의 시작

- 성막 제도를 통해 성경적 예배의 형식과 원리(희생, 정결, 중보)를 확립하며, 구원받은 자

가 죄와 분리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Sanctification)의 구체적인 과정을 제시합니다.

b.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론

- 모세의 중보 사역, 유월절 어린양, 대제사장의 예복과 흉패 등은 모두 메시아(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속주이자 중보자이심을 알려주는 구원론의 핵심적인 모형입니다.

(2) 교회론적 및 종말론적 교리

a. 교회론의 기초

-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조직되고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언약 공동체)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b. 종말론적 소망

- 성막에 임한 구름과 불 기둥의 임재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이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종말론적 소망을 예표합니다.

나.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섭리

(1) 바로의 강박함을 통한 영광의 선포

a. 악인의 사용과 주권

- 하나님은 바로의 강 함을(출 9:16) 사용하여 당신의 능력을 온 천하에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더욱 극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 인간의 죄악이나 거역적인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과 계획 아래 있음을 증명합니다.

[출 9:16] 네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b. 섭리의 통치

-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마라의 쓴물, 양식 부족)에서의 모든 시험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섭리적 훈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2) 풍성한 메시아 예표론의 기초

a. 구원 통로의 모형

-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언약을 중보하며, 희생 제물과 속죄소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구원 통로의 모형을 제공합니다.

b. 영광의 충만

- 사라지는 모세의 얼굴의 광채(율법의 영광)는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광(새 언약의 영광)으로 대체될 것임을 예고하며, 모든 구약의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1 장

/

이스라엘의 고난과 모세 탄생

제 1 장 이스라엘의 고난과 모세 탄생

도입내용

(출 1-2장) 출애굽기는 영웅담이 아닌, 고통받는 민족의 신음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준비로 시작됩니다. 이집트에서의 고난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자, 죄 아래 있는 인류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세상 권력에 맞설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임하며, 우리의 고통 또한 구원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이스라엘의 번성과 바로의 압제

가. 야곱 집안의 번성과 언약의 신실함

(1) 고난 중의 생명력 폭발 <파라>와 언약 성취의 불가피성

- 요셉 이후 400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를 많이 낳고 크게 불어나서 힘이 세지고 온 땅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출

1:7). 여기서 '심히 강대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파라>와 관련되는데, 이는 단순히 수가 늘어난 것을 넘어 생명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영적인 힘을 뜻합니다.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생명력은 이집트의 혹독한 압제 속에서도 오히려 더 강해지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출 1:12). 바로 왕이 아무리 괴롭혀도 세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생명력 <파라>는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승리 선언입니다.
-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창 22:17)이 이집트 노예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약속을 확정하는 도장이었습니다.
- 성도는 세상의 고통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더욱 커지는 영적인 힘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출 1:7]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출 1:12]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창 22: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2) 바로의 생명 공격과 히브리 산파들의 거룩한 저항

-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한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출 1:16). 이는 약속된 민족의 씨앗을 없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려는 사탄의 악한 전략을 대신 실행한 행동이었습니다.
- 그러나 산파 십브라와 부아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공경하여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출 1:17).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것은 '경외심'이며, 이는 세상의 가장 센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 산파들의 거절은 바로의 악한 명령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이었으며, 이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근본적으로 공경하는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 참된 믿음은 세상의 권세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불순종으로 나타나며, 이들의 작은 용기가 모세라는 구원자를 지켜내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출 1:16]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피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그는 살게 두라

[출 1:17]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나. 바로의 압제 심화와 고통의 영적 의미

(1) 바로의 생명 공격과 사탄의 전략

- 이스라엘이 너무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새 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출 1:16). 바로 왕은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며 이 집트의 통치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기 살해 명령은 단순한 인구 조절이 아니라, 약속된 민족의 씨앗을 없애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려는 사탄의 악한 전략을 대신 실행한 행동이었습니다.

- 사탄은 언제나 '생명'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막으려고 합니다. 바로의 행동은 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얼마나 잔인하고 악의적인 파괴성을 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 이 생명 파괴의 시도는 세상의 통치 원리, 즉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사탄의 다스림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통치자의 명령 뒤에 숨겨진 사탄의 영적 공격을 잘 분별하고, 그 악한 힘에 맞서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야 할 신앙인의 의무를 배웁니다.
-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사탄의 영적 도구가 되어 구속사의 흐름을 막으려 했습니다.

(2) 히브리 산파들의 거룩한 저항과 신앙의 용기

- 산파 십브라와 부아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공경하여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출 1:17).

-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것은 '경외심'이며, 이는 세상의 가장 센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산파들의 거절은 바로의 악한 명령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이었으며, 이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근본적으로 공경하는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 이들의 행위는 정치적 압제 속에서 신앙이 어떻게 윤리적인 용기로 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도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인간의 두려움을 없애고, 성도에게 세상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용기와 지혜를 준다는 영적인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 참된 믿음은 세상의 권세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불순종으로 나타나며, 이들의 작은 용기가 모세라는 구원자를 지켜내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출 1:17]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여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2. 모세의 탄생과 애굽 왕궁에서의 준비

가. 모세의 탄생 생명을 건 중보의 시작

(1) 갈대 상자 속의 어린아이와 구속사의 희망

-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이 낳은 아들(모세)은 바로의 명령을 피하려고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 강에 띄워졌고, 바로의 딸에 의해 건져졌습니다(출 2:3-6).
- 모세의 이름 <모쎄>는 '건져내다'는 뜻인데, 이는 그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라는 죽음의 물에서 건져낼 구원자의 운명을 처음부터 담고 있었음을 미리 보여줍니다.
-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한 것은 노아의 방주 <테바>를 떠올리게 하며, 이는 죄와 죽음의 물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생명이 지켜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배운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의 기본은, 나중에 40년 동안 왕궁에서 배운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뿌리가 되었습니다.
-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머니의 무릎에서의 신앙 교육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 위에서 준비됩니다.

(2) 왕궁에서의 교육과 이집트의 지혜

-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이집트 왕궁에서 40년간 성장하며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행 7:22). 이는 그가 당대 최

[출 2:3]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가 갈대사이에 두고

[출 2:4]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출 2:5]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출 2:6]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행 7:22]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고의 문명과 권력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
추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위해 세상의 모든 지혜
와 권력을 통달할 수 있는 도구를 준비시키셨
습니다. 이 훈련은 모세가 장차 바로와 대결할
때 이집트의 체계를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했습니다.
- 그러나 이 지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
을 이루려 하는 인간적인 의협심으로 이어져,
성급하게 동족을 도우려다 살인을 저지르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 실패는 모세가 인간
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는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
다.

나. 광야에서의 연단과 하나님의 부르심

(1) 미디안 광야에서의 연단과 자아의 파쇄

-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사건 때문에 바로 왕의 얼
굴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출 2:15).
-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든 지위, 힘, 지혜를 잃
어버린 이 광야 40년은 모세의 인간적인 자
아(Ego)가 완전히 부서지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자아 깨짐'의

[출 2:15] 바로가 이 일
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
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
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
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
라

시간이었습니다.

- 이 기간은 모세가 자신에게만 의존하던 옛 습관을 버리고, 오직 지팡이에만 의지하는 단순한 목자의 삶을 통해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는 영적인 훈련이었습니다.
- 모세는 광야의 조용하고 외로운 시간 속에서 세상의 화려한 소리 대신 하나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훈련받았으며, 영원한 지혜를 묵상하는 영적 지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 구원 도구는 세상적인 능력이 최고일 때가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영적인 광야 속에서 준비됩니다.

(2) 르우엘의 가족과의 만남과 영적인 준비

- 모세는 미디안에서 르우엘(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 결혼했습니다(출 2:21).
- 광야는 도망치는 곳이면서 동시에 구원 사역을 준비하는 영적인 학교였습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언약의 피를 나눈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히브리인으로서의 뿌리를 다시 확인했을 것입니다.
- 이 만남을 통해 그는 가정을 이루고 목자로서의 평범한 삶을 살면서, 영적인 겸손과 인내를 배웠습니다.

[출 2:21]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 하나님은 모세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서 벗어나 영적인 광야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소명을 준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성도 또한 세상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2 장

/

모세에게 임한 소명과 계시

제 2 장 모세에게 임한 소명과 계시

도입내용

(출 3-4장)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모세의 인간적인 망설임이 교차하는 내용입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구원 사명을 주시고, 스스로 계신 분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이유로 다섯 번이나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등 확실한 능력의 표징과 함께 아론을 대변자로 붙여 그를 강권적으로 이끄십니다. 이 장들은 사명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며, 진정한 순종은 그 능력에 의지하여 두려움을 넘어 행동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1. 떨기나무 불꽃 언약의 현현과 거룩한 소명

가. 광야에서 만난 거룩한 불꽃 <센나>

(1) 타지 않는 불의 신비와 임재의 방식

- 모세가 호렙 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신비로운 광경을 보았습니다(출 3:2). 이 떨기나무는 히브리어 <센나>로, 광야의 하찮고 쉽게 타버릴 수

[출 3:2]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있는 나무입니다. 이 타지 않는 불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원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 하나님의 거룩함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앨 수 있는 불이지만, 동시에 당신의 백성인 연약한 떨기나무는 태우지 않고 지켜 보호하며 거룩하게 하는 은혜의 불이기도 합니다.
- <센나>는 보잘것없는 인간 모세, 그리고 고난 속에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연약함 속에서도 그들을 태우지 않고 보호하고 보존할 것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 이 불꽃은 장차 성령께서 연약한 성도의 마음 속에 오셔서 거룩하게 하시되, 그를 해치지 않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 하나님의 임재는 모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지만(출 3:6),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공경하는 마음'(경외함)으로 바뀌어 사명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출 3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2) 벗어야 할 신발 땅의 거룩함과 겸손

-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출 3:5).
- 신발은 세상의 더러움이 묻는 곳이자, 고대에

[출 35]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모세가 서 있는 이 땅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세상의 더러운 습관과 모든 인간적인 권리를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요구하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 모세는 이 명령을 통해 자신이 소유했던 애굽 왕자의 신분과 권리를 완전히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명령은 모세가 광야의 목자로서의 자신, 그리고 과거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든 권력과 더러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함을 가르칩니다.
- 하나님 일꾼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질은 뛰어난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겸손과 순종임을 가르칩니다.

나. 스스로 있는 자의 계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1)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의 역동적 의미와 구속 사역의 보증

-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출 3:14)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출 3: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 히브리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는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되려는 자이다'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이 나 논리를 뛰어넘어 그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 이 이름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확실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구원 사역의 능력과 확실함을 보증하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 모세는 이 이름을 통해 자신이 맞서야 할 이집트의 권력과 우상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헛된 존재들이지만, 자신을 보내신 분은 영원히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 구원과 능력의 이름이 주는 확신

- 하나님은 이 이름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출 3:15)을 붙이셨습니다. 이는 영원하고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언약을 맺고 관계하시는 '관계적인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가 그분의 본질을 나타낸다면 '조상의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 즉

구원과 동행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모세는 이 두 이름의 결합을 통해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자신의 뒤에는 영원히 존재하는 절대자가 계시며 그 절대자가 자신의 모든 필요와 능력을 공급하실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 구원 사역은 인간의 불안과 의심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라는 확신 위에서만 담대하게 수행될 수 있습니다.

2. 모세의 거절과 하나님의 능력

가. 인간의 연약함과 소명의 주저함

(1) 핑계와 불신앙의 심리

- 모세는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출 3:11)라며 계속해서 망설였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엄청난 부르심 앞에서 느끼는 근본적인 무능함과 믿지 못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 모세가 댄 네 가지 핑계(자신의 무가치함, 하나님의 이름, 이적의 필요성, 말씀씨 부족)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에 집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가 순종

[출 3:11]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할 때 그 순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2) 이적을 통한 능력의 부여

-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손을 나병에 걸리게 했다가 다시 낫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출 4:1-8). 이는 모세에게 있는 힘이 아니라, 그를 보낸 하나님께 권능이 있음을 증명하는 표적이었습니다.
-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세상 권력(뱀)을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손의 나병은 모세가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졌음을 상징합니다.
-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망설일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아론을 통한 동역과 증보 사역의 준비

(1) 모세의 입이 된 아론의 역할과 공동체 동역의 원리

- 모세가 자신의 말씀씨가 부족하다며 마지막까

[출 4:1]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출 4:2]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출 4: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앞에서 파하매

[출 4: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출 4:5]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출 4:6]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출 4:7]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

지 주저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그의 '입'으로 삼아 함께 동역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출 4:14-16).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동역자와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구원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진 동역자들의 은사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 집니다. 아론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말을 대언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구원 사역의 초기 협력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 성도는 자신의 은사뿐 아니라 다른 성도의 은사를 인정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깨달아야 합니다.

(2) 광야로 돌아가는 모세와 권위의 상징

-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출 4:24-26). 이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할례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중보자라도,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의 요구에 대해서는 먼저 철저히 순종하고 거룩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모세

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출 4:8] 여호와께서 가
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
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
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
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
징은 믿으리라

[출 4:14] 여호와께서 모
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
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
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
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
뻐할 것이라

[출 4:15] 너는 그에게 말
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출 4:16] 그가 너를 대
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
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
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출 4:24]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
시는지라

[출 4:25] 십보라가 차
돌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
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

의 권위는 이처럼 지팡이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순종에서 나왔습
니다.

-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 영적인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편이로다하니
[출 4:26]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
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
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
이었던라





3 장

/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제 3 장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도입내용

(출 5-6장) 모세의 전파에도 바로의 마음은 굳어졌고, 이스라엘의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는 구원 초기에 오는 사탄의 큰 저항을 보여 줍니다.

절망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자, 하나님은 약속을 더욱 강력하게 재확인하시며 구원 역사를 선포하셨습니다. 성도의 고난이 심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역동적인 개입이 곧 있을 영적인 신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1. 바로의 강악함과 이스라엘의 고통 심화

가. 바로의 거절과 신적 권위의 부정

(1) 바로의 무지 "여호와가 누구관대"와 세상 권력의 교만

-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출 5:1)고 전했을 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출 5:1]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출 5:2)고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는 자신을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집트 통치 이념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권위와 신성함을 정면으로 무시했습니다.

- 바로의 교만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근본적인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 바로의 무지는 진리를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거절하는 영적 완악함의 극치이며,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불러오는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선언한 것은 단순한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거부이자 영적인 완악함입니다.

[출 5:2]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2) 바로의 압제 강화와 이스라엘 감독들의 탄식

-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짚을 주지 않으면서도 벽돌 만드는 양은 줄이지 않는 이중적인 압제를 가했고(출 5:7), 이스라엘의 고통은 이전보다 훨씬 심해졌습니다. 이는 구원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현실적인 고난이 더 깊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구원 사역은 때로 구원받은 직후에도 더 큰 영적인 시련을 동반하며, 이는 백성들의 인간적인 희망과 기대

[출 5:7]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짚게하라

를 완전히 꺾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바라보게 하려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 고통이 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너희가 우리를 바로와 그 신하의 눈에 밟게 하여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출 5:21)라고 항변했습니다. 성도는 시련 앞에서 지도자나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 고난의 가중과 노예들의 좌절

(1) 바로의 무자비한 정책: 짚 없는 벽돌 생산 강요

- 바로가 내린 명령은 "너희는 이 백성에게 다시는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자기들이 가서 짚을 줍게 하라"(출 5:7)는 것이었습니다.
- 짚은 벽돌을 만들 때 접착력을 높이고 갈라짐을 방지하는 필수적인 재료였습니다. 짚을 주지 않으면서도 벽돌의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하라는 바로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을 극도의 육체적 고통과 절망에 빠뜨리려는 악의적인 압제였습니다.
- 바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요구를 이스라

[출 5:7]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하라

엘 백성의 '게으름'으로 왜곡하여 더욱 잔인하게 통치했습니다(출 5:8). 이는 사탄이 성도의 순결한 믿음과 예배를 항상 비방하고 더 가혹한 시험으로 몰아넣는 영적 원리를 반영합니다.

(2) 이스라엘 감독들의 고통과 좌절

- 바로의 가혹한 명령이 시행되자, 이스라엘 자손의 감독들은 매일의 정한 수효를 채우지 못하여 애굽 감독들에게 맞고 채찍질을 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출 5:14). 이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바로에게 호소했지만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출 5:17)는 조롱과 거절만 당했습니다.
-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의 고난이 바로가 아닌 모세와 아론 때문에 생겼다고 오해하며(출 5:21), 구원자로 나타난 지도자를 원망하는 영적 미숙함을 보였습니다. 구원 사역은 인간적인 계획과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가 절대적으로 요구됨을 보여줍니다.

[출 5:14]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느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출 5:17]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하는도다

2. 언약의 재확인 여호와와 이름과 구속 의지

가. 모세의 항변과 하나님의 언약적 응답

(1) 절망 속의 중보자와 하나님의 응답

- 모세는 백성의 원망과 고통을 보고 하나님께 “주께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출 5:22)라며 간절히 물었습니다. 모세의 이 질문은 구원사역의 중보자가 백성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여기는 깊은 공감과 책임감에서 나온 고뇌였습니다.
- 참된 중보자는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괴로움 사이에서 힘들어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영적인 부담감을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항변에 대해 질책 대신 언약의 이름으로 응답하셨습니다(출 6:2-3). 이는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응답이 주어지며, 구속 역사의 주권이 인간의 감정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 5:22]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출 6: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출 6: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출 6: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출 6: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2) 여호와 <아훼>의 계시와 구원의 보증

-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로라”(출 6:2)고 선언하시고,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 쇼다이>로 나타났으나, 자신의 이름 여호와 <아훼>로는 알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출 6:3).

- 여호와 <야훼>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넘어,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직접 이루시는 '구원 관계' 안에서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해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제 실현할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시며, 모세에게 구원 사역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며 편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여"(출 6:6)라는 일곱 번의 '내가 할 것이다'라는 선언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성도가 세상의 압제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영원한 근거가 됩니다.

[출 6: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나.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모세의 사명

(1) 불신앙으로 인한 모세의 사명 좌절

- 모세가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워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출 6:9). 이는 구원의 약속이 눈앞의 고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은

[출 6:9]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흑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구원 사역의 가장 큰 장애물이 인간의 연약함과 불신앙임을 깨닫게 합니다.

-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출 6:12)라며 자신의 무능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좌절을 허용하셨지만, 사명을 거두지 않으시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재촉하셨습니다.
- 하나님의 소명은 인간의 성공이나 실패, 또는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속됨을 보여줍니다.

(2)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 모세의 계속된 거절과 입이 둔하다는 핑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습니다(출 6:13). 이는 사명자의 자격이 개인의 능력이나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이나 환경의 악조건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부족한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주권

[출 6:12]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출 6:1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라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 대거나 상황을 탓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4 장

/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제 4 장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

도입내용

(출 7-10장) 출애굽기 7장부터 시작된 열 가지 재앙은 구원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장엄한 심판의 드라마입니다. 이 재앙들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나일강, 하늘, 땅, 생물 등 이집트의 모든 우상과 신들에 대한 창조주 여호와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자, 그분의 주권적인 권능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챕터는 초기 아홉 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임을 증명하고, 세상 권력의 고집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지를 깊이 있게 풀어냅니다. 성도는 이 재앙들을 통해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모든 욕심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1. 재앙을 통한 애굽 신들의 무능력 폭로 (1-6 재앙)

가. 나일강과 땅의 신들에 대한 심판 (1-3 재앙)

(1) 피 재앙과 나일강의 몰락

-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여 물고기가 죽고 강물이 썩은 냄새를 풍긴 사건이었습니다(출 7:20-21).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의 생명줄이자, 생명과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출 7:20]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출 7:21]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신(하피 신, 오시리스 신)의 상징이었습니다.

- 하나님께서 이 강물을 피로 바꾸심으로써, 생명을 주관하는 진짜 권세는 나일강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선언 하셨습니다. 생명의 물이 죽음의 피로 변한 것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2)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

-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은 다산과 풍요의 신인 헤케트 신을 비웃는 심판이었습니다(출 8:6). 풍요를 상징하던 개구리들이 통제 불가능한 징그러운 존재로 변하여 이집트 전역을 뒤덮었을 때, 이는 이집트가 믿던 풍요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은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흉내 내는 데 실패한 첫 번째 재앙이었으며, 그들 스스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로소이다"(출 8:19)라고 인정하는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재앙을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더 퍼지게 한 것은 인간의 사술이나 기술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출 8:19]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퍽케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 하였으니 여호와와 말 씀과 같더라

나. 구별의 시작과 육체의 신들에 대한 심판 (4-6 재앙)

(1) 파리 때 재앙과 구별의 시작 <고센>

- 네 번째 파리 때 재앙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과 이집트 땅을 분명하게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출 8:22). 이는 단순한 지역 구분이 아니라, 영적인 구별(Separation)의 표시였습니다.
- 구원은 세상의 죄악과 멸망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보호받는 거룩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 구별은 성도가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2) 가축의 죽음과 악성 종기 재앙

-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은 애굽의 동물 신들을 심판하고, 모든 생명의 주권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확증했습니다(출 9:6).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는 모세가 풀무의 재를 날려 사람과 짐승에게 붙게 한 심판이었습니다(출 9:8-10).
-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의지하던 의술의 신(임호텟)과 질병을 막아주는 신들의 무능함을 폭

[출 8:22] 그 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의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출 9:6]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출 9: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출 9:9]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출 9:10]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로했습니다. 특별히 이 재앙은 요술사들에게도 임하여 그들이 악성 종기로 인해 모세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었으며(출 9:11), 이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인간의 기술이나 사술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보여줍니다.

[출 9:11]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서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2. 하늘 권세와 태양신의 패배 (7-9 재앙)

가. 우박과 메뚜기, 자연 통치권의 박탈

(1) 우박 재앙

-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은 하늘과 땅의 소산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신들(누트, 세트)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애굽 개국 이래 없던 맹렬한 우박이 내려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를 꺾었고(출 9:24-25), 이는 이집트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 바로는 이 재앙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노라"(출 9:27)고 일시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자연 통치권 앞에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 9:24]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출 9:25]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찢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도되

[출 9:27]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2) 메뚜기 재앙

-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은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열매를 다 먹어 치워 이집트

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출 10:15). 풍요를 주관하는 것은 헛된 우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선포했습니다.

나. 흑암 재앙과 태양신 라의 패배

(1) 흑암 재앙과 태양신 라의 패배

-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은 사흘 동안 이집트 온 땅에 짙은 어둠을 가져왔습니다(출 10:22). 태양신 라(Ra)를 가장 높이 섬기던 이집트에게 이 흑암은 그들의 신이 아무 힘이 없고 헛된 존재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심판이었습니다.
-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분으로서 세상의 모든 빛의 근원이 오직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흑암은 세상의 어둠과 죄악이 얼마나 깊은 영적인 어둠 상태인지를 상징합니다.

[출 10:22]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삼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 이스라엘에게 비친 빛

-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있었다는 사실(출 10:23)은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어둠과 완전히 구별되어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야 할 영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 10:23] 그 동안은 사람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3. 바로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능력 선포

가. 바로의 고집과 심판의 이유

- 재앙이 거듭될수록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가도 다시 마음을 굳게 하여 약속을 어겼습니다.
- 바로의 완악함은 히브리어 <카바드>로 표현되는데, 이는 '마음이 무겁게 되다', '둔하게 되다'는 뜻을 갖습니다. 이는 바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영적 마비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줍니다.
- 바로의 고집은 인간의 죄가 심화될 때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거부하게 되는 인간 본연의 완악함을 상징합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함

-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출 9: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는 바로의 완악함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온 세상에 유일한 통치자로 선포될 것임을 명시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출 9:16] 네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재 양	깨뜨려진 이집트의 신들	관련성구
1	물이 피로 변함	나일강의 수호신 크눔(Khnum) 하피(Hapi)	출 7:14-25
2	개구리	부활과 다산(多産)신 헤크트(Heqt, 크눔의 부인)	출 8:1-15
3	이	흙의 신 셉(Seb), 곤충의 신 케퍼(Kheper)	출 8:16-19
4	파리	파리의 신 바알세불(Beelzebub, 에그론 도지도 이 신을 섬겼다)	출 8:20-32(마 12:24)
5	가축의 약질	신성한 황소의 신 아피스(Apis, 내세를 약속했다)와 므네비스(Mnevis), 암소의 수호신 하도르(Hathor)	출 9:1-7
6	독종	주술과 치료의 신 토트(Thoth)	출 9:8-12
7	우박	창공의 여신 누트(Nut, 대기(大氣)의 신 수(Shu)	출 9:13-35
8	메뚜기	곡물의 신 셋(Seth),	출 10:1-20
9	암흑	태양의 신 라(Ra), 태양의 여신 세케트(Sekhet)	출 10:21-29
10	초태생의 죽음	생명을 부여하는 신 오시리스(Osiris), 생명을 수호하는 신 이시스(Isis), 지상의 태양신 바로(Pharaoh)	출 11:4-12:30





5 장

/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통한 구원

제 5 장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통한 구원

도입내용

(출 11-12장)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은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절정입니다. 흠 없는 어린양의 피는 죄를 대신 갚는 대속의 원리를, 유월절 식사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미리 보여주며, 구원 받은 백성의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정해줍니다. 이 장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통해 거룩한 새 삶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의 구원과 거룩해짐의 원형입니다. 성도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자신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비싼 희생을 통해 얻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피의 능력과 믿음으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1. 장자의 죽음 최종 심판과 구별의 필요성

가. 최종 심판의 불가피성과 구원의 문

(1) 심판의 선포와 바로의 강악함의 종말

- 아홉 번째 재앙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출 11:4-5). 이 재앙은 바로의 아들부터 옥에 갇힌 자의 장자,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

[출 11:4]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출 11:5]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얹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까지 애굽의 모든 생명을 멸하는 전면적인 심판이었습니다.

- 이 심판의 선포는 바로의 완악함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죄의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며, 이 심판을 통해서야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인간의 강악함이 끝까지 지속될 때 필연적으로 닥치는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이 심판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마지막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2) 이스라엘과 애굽의 확실한 분리 선언

-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 심판이 미치지 않게 하심으로써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출 11:7)고 재차 선포하셨습니다.
- 이 구별은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피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의 심판과 운명을 공유하지 않는 거룩한 존재임을 확증합니다.
- 이 구별은 성도가 세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야 할 영적인 삶의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출 11:7]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허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나. 유월절 어린양과 대속의 교리

(1) 어린양 피의 대속적 의미와 구원의 은혜

-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출 12:5-7).
- '흠 없는' 어린양은 죄를 대신 값을 제물이 흠 없고 깨끗해야 함을 가리키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장 분명하게 미리 보여 줍니다.
-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간다'는 <페샷>은 인간의 노력이나 착한 행위가 아닌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음을 증거 합니다.
- 이 피 바름의 행동은 '나는 죽었어야 마땅하지만 이 어린양의 희생 덕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 유월절의 피는 성도의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며, 구원은 오직 대신 값을 치른 은혜와 믿음을 통해 얻어진다는 복음의 진리를 확증합니다. 성도는 매일의 삶에서 이 피의 권세를 의지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출 12:5]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 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출 12:6] 이달 십사 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출 12:7]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2) 무교병과 쓴 나물 영적 양식의 예표

- 유월절 식사 때 누룩 없는 떡(무교병)을 먹으라는 명령은(출 12:8) 죄악으로 가득했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아주 빠르게 거룩한 삶을 시작하라는 요구입니다.
- 누룩은 성경에서 죄와 부패를 상징하며, 이를 제거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세상의 썩은 풍습과 완전히 끊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단지 과거의 용서에 머물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영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 함께 먹은 '쓴 나물'은 이집트에서의 혹독했던 노예 생활의 고통과 괴로움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 성도는 쓴 나물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과 죄의 쓴맛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출 12:8]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2. 출애굽의 시작과 기념

가. 여호와와의 군대와 영원한 기념

(1) 구속받은 군대와 새로운 정체성

-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올 때 성경은 그들을 "여호와와의 군대"(출 12:41)라고 불렀습니다. 오

[출 12:41] 사백삼십 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합지졸 노예였던 그들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 이들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싸우는 거룩한 군대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 이 정체성의 변화는 성도의 삶 전체를 지배해야 합니다. 성도 또한 세상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깨닫고, 담대하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2) 유월절을 대대로 기념하는 교육적 목적

- 하나님은 유월절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가르쳐 그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출 13:8-9).
- 구속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삶과 다음 세대의 신앙을 교육하는 영원한 교육적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성찬식의 원형이며,
- 성도는 이 기념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출 13:8]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뵈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출 13:9]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와 율법으로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나. 초태생의 봉헌과 인도하심의 약속

(1) 초태생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명령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수컷, 곧 초태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 13:2). 이는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이 죽임을 당했던 마지막 심판(출 12:29)을 기억하게 하려는 영원한 규례였습니다.
-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죽음에서 구별되어 살아 남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봉헌이었습니다.
- 이 규례는 성도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드린 것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신앙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출 13:2]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 12:29]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2)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

-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애굽을 떠나 광야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취사 주야로 행하게 하시니"(출 13:21). 구름 기둥은 낮의 또

[출 13:21]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취사 주야로 행하게 하시니

거운 태양을 막아주고, 불 기둥은 밤의 추위와 어둠을 밝혀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한 인도하심을 상징하며,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필요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제공해 주심을 보여줍니다.

- 성도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야 합니다.





6 장

/

출애굽과 홍해를 건넘

도입내용

(출 13-14장) 홍해를 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세상)와 완전히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세례와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개인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을 괴롭히던 모든 원수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챕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능하신 구원 능력을 깊이 있게 풀어냅니다. 성도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음을 선포하는 신앙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1.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와 홍해 도하

가. 임재의 가시화와 절대적인 신뢰

(1) 광야 길의 동행과 영적 안내

- 하나님은 백성을 지름길인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하셨습니다(출 13:21).

[출 13:21]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취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 이 구름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Presence)가 눈에 보이게 나타난 모습이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영적인 확신을 주었습니다.
- 하나님의 인도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효율적인 방법을 벗어날 때도 있지만, 그분의 뜻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길임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이 기둥을 따름으로써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길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2) 홍해 도하와 세례적 의미

- 이집트 군대의 추격과 홍해에 막혀버린 절망적인 상황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원 직전의 위기를 상징합니다.
-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출 14:21-22). 이 홍해 도하 사건은 바울이 말했듯이 "세례를 받고"(고전 10:2)라는 말씀처럼 영적인 세례를 미리 보여줍니다.
- 이스라엘은 물을 통과함으로써 이집트의 노예 신분과 옛 생활이 완전히 '죽었음'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증했습니다. 세례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완

[출 14:21]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 14:22]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고전 10:2]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서서 세례를 받고

전한 분리와 새 생명으로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홍해는 옛 자아와 옛 주인에 대한 완전한 죽음의 선포였습니다.

나. 애굽 군대의 수장과 심판의 완성

(1) 홍해를 통한 구원과 애굽 군대의 수장

- 이스라엘을 뒤쫓아 오던 바로의 군대가 마침내 홍해에서 물에 잠겨 수장된 것은(출 14:28) 성도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죄의 권세, 즉 세상의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완전히 힘을 잃었음을 선포합니다.
- 홍해의 물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물이었지만, 이집트에게는 심판과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원수에 대한 완전한 심판임을 보여주며, 성도는 죄와 사망의 세력이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할 수 없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완전한 해방을 통해 이스라엘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출 14:28]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2) 여호와를 경외함과 믿음의 확신

- 애굽 군대가 물에 잠겨 멸망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세와 그 종을 믿었더라"(출

14:31)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홍해의 기적은 단순한 해방 사건을 넘어, 이스

- 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모세가 하나님의 진정한 종임을 깨닫게 하는 믿음의 확증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노예 생활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영적 성숙의 순간이었습니다.
-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고 경험함으로써 세상의 헛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2. 백성의 불평과 모세의 중보

가. 절망적인 상황과 옛 습관의 반복

(1) 불신앙의 재현과 원망의 심리

-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직후, 이스라엘 백성은 뒤따라온 군대를 보며 두려움에 떨었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출 14:10-12). 이는 구원받은 직후에도 여전히 옛 노예 근성과 불신앙이 쉽게 반복되는 인간 본연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 절망적인 상황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불신앙

[출 14:31]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 14:10]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출 14:11]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출 14:12]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을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모세는 이 원망 앞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했습니다. 중보자는 백성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자비를 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출 14:13)고 선포했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행위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출 14: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날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2) 하나님의 영광이 선두에 서다

- 하나님의 사자(천사)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뒤로 옮겨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사이에 서게 하셨습니다(출 14:19-20). 이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시어 원수의 공격을 막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임재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 성도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선두와 후미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는 명령을 통해, 중보 기도 자체는 중요하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행동 명령보다 앞설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출 14:19]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 서고 뒤로 옮겨
[출 14:20]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즉각적인 순종이 먼저 요구됩니다.

나. 홍해의 기적과 구속의 확증

(1) 바다를 가르시는 전능의 능력

-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출 14:21).
- 이 기적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물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직접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마른 땅을 걸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하나님만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 이 사건은 성도의 삶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며,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애굽 군대의 멸망과 구속의 완성

-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안전하게 건넌 후, 뒤따르던 애굽 군대는 다시 합쳐진 물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출 14:27-28).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

[출 14:21]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밀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출 14:27]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엎으시니

[출 14:28]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을 때, 그들의 구속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 세력에게 내리신 최종적인 심판이었습니다.

- 이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한 해방을 경험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와 그 종을 믿게 되었습니다(출 14:31).
-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와 사망의 세력이 멸망하였음을 확신하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출 14:31]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7 장

/

광야의 연단

제 7 장 광야의 연단

도입내용

(출 15-18장)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받는 영적인 학교였습니다. 백성들은 목마름과 굶주림 속에서 자신의 불신앙과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광야는 부족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경험하는 훈련장이었습니다. 성도는 모든 고난을 통해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단련 받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진리를 배웁니다.

1. 마라의 쓴물과 치료하시는 하나님

가. 시험과 치유의 원리

(1)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능력

-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었고 불평했습니다(출 15:22-24).

[출 15:22]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출 15:23]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출 15:24]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하매

- 마라의 쓴물은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기대했던 백성들의 영적인 갈증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직후에도 삶에는 여전히 쓴맛(고난)이 존재하며, 이 쓴맛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시험대 역할을 합니다.
- 이 쓴맛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죄의 쓴 뿌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사 물에 던지게 하셨더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출 15:25). 이 나무는 쓴물을 생명수로 바꾸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과,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저주를 생명의 은혜로 바꾸실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 이 쓴물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출 15:26)고 계시 하셨습니다.

[출 15: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 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출 15:26]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 16:4]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것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2) 만나와 반석의 생수 공급

-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림으로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출 16:4)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나?'라는 뜻의 히브리어 <만 후>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공급임을 상징

합니다. 만나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요 6:51)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줍니다.

-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목마름으로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고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출 17:6). '반석'은 히브리어 <마침>이며,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물은 곧 성령의 생수를 미리 보여줍니다.
-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며,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부터 터져 나오는 성령의 생수로만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 6:51]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 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출 17:6] 내가 거기서 호렙 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 로 행하니라

나. 마라에서의 언약적 교훈

(1) 율례와 법도의 제정 목적

-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출 15:25).
- 이 율례와 법도는 시내산에서 정식으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광야 생활의 초기에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범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쓴물을 단

[출 15: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 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 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신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치유의 축복이 그들의 순종에 달려 있음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 즉,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 능력은 반드시 인간의 순종이라는 응답을 요구하며, 순종이야말로 쓴 광야 인생을 단맛 나는 은혜의 삶으로 바꾸는 영적 원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2) 치료하시는 여호와(여호와 라파)의 계시

-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출 15:26)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Yahweh Rapha)라 불리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상한 영혼과 쓴 인생의 고통까지도 치유하시는 전인적인 구원자이심을 계시합니다.
- 이 치유의 약속은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언약적 축복이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고통(쓴물)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 라파의 말씀을 의지하여 영적, 육적 치유를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출 15:26]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 아말렉 전투와 모세의 장인 이드로

가. 아말렉 전투와 영적 전쟁의 원리

(1) 기도의 손과 승리의 근원

- 르비딴에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출 17:8). 아말렉은 구원 여정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원리(출 17:11)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현장의 전투력이 아니라, 모세의 중보 기도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성도의 승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성령의 능력에 의존함을 깨닫게 합니다.
-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려 승리를 확정지은 것은(출 17:12) 영적 지도자의 사역이 공동체의 중보와 협력을 통해 유지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적 부담을 공동체가 함께 짊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2) 이드로의 방문과 하나님 찬양

-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와 모든 신보다 크시다"(출 18:10-11)라고 고백한 것은, 구원 역사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 17:8]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딴에서 싸우니라

[출 17: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출 17:12]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출 18:10]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출 18:11]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와 모든 신보다 크시므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행하는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됨을 가르쳐 줍니다.
- 이드로는 또한 모세가 혼자 모든 재판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너희에게 해가 되나니"(출 18:17)라며 천부장, 백부장 등의 조직을 세우도록 조언했습니다.
- 영적인 사역일지라도 지혜로운 조직과 위임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이는 성도가 세상의 지혜로운 원리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출 18:17]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의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출 18:1]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출 18:10]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출 18:11]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와 모든 신보다 크시므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나. 이드로의 지혜와 사역의 조직화

(1) 이방인의 고백을 통한 하나님 영광의 증거

-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홍해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출 18:1).
- 이드로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듣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했으며,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와 모든 신보다 크시므로"(출 18:10-11)라고 선포했습니다

다. 이는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내부를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증거 되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신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선교적 목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 성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입니다.

(2) 사역의 위임과 조직적 효율성

- 이드로는 모세가 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모든 소송과 문제를 재판하는 것을 보고, 이 방식이 모세와 백성 모두에게 해가 될 것임을 지적했습니다(출 18:17-18).
-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 백성을 다스리게 했습니다(출 18:21-22).
- 이 조직 개편은 영적인 사역일지라도 지혜로운 조직과 리더십의 위임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어려운 문제만 담당하고 나머지 일은 다른 지도자들에게 맡김으로써 사역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현대 교회의 조직 운영과 사역 분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출 18:17]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출 18:18] 그대와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출 18:21]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 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출 18:22]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8 장

/

거룩한 임재와 십계명

제 8 장 거룩한 임재와 십계명

도입내용

(출 19-20장)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임명하는 거룩한 계약입니다. 여호와와 영광스러운 현현 아래서 주어진 십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성도는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해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더욱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할 신앙인의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이 챕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 가져야 할 경외심과 율법이 성도에게 주는 영원한 교훈을 다룹니다.

1. 시내 산의 거룩한 현현과 소명

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소명

(1) 특별한 소유와 거룩함의 요구

-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6)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

[출 19: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그들의 존재 목적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적인 역할(제사장 나라)에 있음을 명시합니다.

- 구속은 특권을 넘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사명(Mission)을 부여받는 영적인 전환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받기 전에 삼 일 동안 옷을 빨고 성결하게 준비하라고 명령하셨고, 산 주변에 경계를 설정하여 백성이 산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출 19:10-12).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인간의 죄악된 본성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보여주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과 구별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가르칩니다.

(2) 불과 우리 속의 하나님의 임재

- 셋째 날 아침에 시내 산 위에는 우리와 번개와 뽀뽀한 구름이 있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 산 전체가 연기가 자욱하고 불이 내려오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습니다(출 19:16-18). 이 현현(Theophany)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카보드>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출 19: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출 19:11] 예비하여 제삼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삼일에 나 여호와 가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출 19:12]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녕 죽임을 당할 것이라

[출 19:16] 제삼일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뽀뽀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 19:17]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출 19:18]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웅기점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 하나님의 임재는 피할 수 없는 진노의 공포와 동시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선포와 말씀의 권위를 알리는 수단이었습니 다.
- 백성들은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음으로써 율법이 인간의 창작물이 아닌, 절대적인 신적 권위에 근거한 것임을 체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나. 언약 체결을 위한 백성의 준비와 응답

(1) 정결의 요구와 하나님의 거룩성

-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삼 일 동안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출 19:10). 이는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적, 육체적 정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인간 편에서의 성결한 준비와 태도를 요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출 19:12)를 넘어 산에 침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의 장난이나 방종으로 침범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임을 백성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출 19: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출 19:12]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녕 죽임을 당할 것이라

(2) 순종의 서약과 언약의 체결

-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출 19:8)라고 순종을 서약했습니다.
- 이 일방적인 언약 체결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언약 공동체의 공식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순종의 서약 위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아야 할 언약적 책임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출 19:8]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2. 십계명 언약의 기초와 영원한 도덕률

가. 대신 관계의 율법 신적 사랑의 절대성

(1) 하나님의 유일성과 참된 예배의 대상

-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출 20:3)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보았던 수많은 우상과 다신 숭배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출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숭배의 대상임을 확증하는 절대적인 요구입니다.

- 이 계명은 구속받은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나 물질도 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음을 못 박는 영적 순결성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계명인 우상숭배 금지는 하나님을 인간의 제한된 개념이나 물질적인 형상 안에 가두려는 모든 시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2) 안식일의 거룩성 회복과 안식의 참 의미

-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은(출 20:8)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쉬신 것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노동과 수고를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쉬)을 누리라는 신적인 명령입니다.
- 안식일은 성도가 세상의 분주함과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영적인 재충전을 얻어야 할 거룩한 시간을 상징합니다. 참된 안식은 노동의 멈춤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출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 대인 관계의 율법 이웃 사랑의 구체화

(1) 부모 공경과 사회 질서의 토대

- 십계명 중 인간 상호 간의 관계(대인 관계)를 규율하는 첫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였습니다. 이는 수평적인 인간 관계의 시작이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한 순종의 기본을 가르칩니다.
- 부모 공경은 언약 공동체가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는 핵심적인 사회 윤리였으며,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반영이자, 율법의 정신이 사회 구조 속에서 실현되는 첫걸음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출발점입니다.

(2) 인간 존엄성 보호와 내면의 순결성 요구

- "살인하지 말지니라"(출 20:13)부터 "탐내지 말지니라"(출 20:17)까지의 계명들은 생명, 가정의 순결, 재산, 명예를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규율입니다.
- 특히 마지막 계명인 탐심 금지는 외적인 행위를 넘어 인간의 마음속 깊은 동기와 욕망까지도 거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이며, 탐심을 금하는 것은 성도의 내면을 다스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 20:13] 살인하지 말지니라

[출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있습니다. 율법은 외적인 행동 이전에 마음의 태도와 동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칩니다.

구분	계명 요약	핵심성경구절
제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3절)
제2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4~5절)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7절)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8절)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12절)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13절)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14절)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15절)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6절)
제10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17절)





9 장

/

율법을 통한 거룩한 백성의 삶

제 9 장 율법을 통한 거룩한 백성의 삶

도입내용

(출 21-24장) 율법은 십계명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자세한 사회 법규입니다. 이는 노예, 재산 등 여러 규칙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제사장 나라'의 설계도 역할을 합니다. 이 법전은 사회 정의와 죄를 다루는 방법을 제시하며, 성도는 이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할 실천적인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1. 세부 율례와 사회적 정의

가. 시민법과 약자 보호 공동체의 완성

(1) 종, 과부, 고아 보호법

- 언약 법전은 종에 관한 법규로 시작하며, 이는 당시 고대 근동의 잔인한 노예 제도와 달리, 종의 인권을 보호하고 해방 시점을 정해줌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려는 하나님의 뜻

을 보여줍니다(출 21:1-11).

- 구속받은 백성들은 과거 자신들이 겪었던 노예의 고통을 기억하며, 사회적 약자인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할 영적인 의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출 22:21-22). 이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하나님임을 반영하며,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이웃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영적인 의무를 부여합니다.
- 재판에 관한 규례는 뇌물 받기를 금하고 거짓 증거를 멀리하며(출 23:1, 6-8), 공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2) 제사법과 죄의 처리 용서의 길

- 율법 안에는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 제도에 관한 규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레 17: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 제사 제도는 죄를 지은 인간이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 임시적인 용서를 얻는 방법

[출 22:21] 너는 이방나 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라
[출 22: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출 23:1]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 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출 23:6]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출 23:7]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출 23:8]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었으며, 이 모든 제사 의식은 장차 오셔서 단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바라보는 예표적 역할을 했습
니다. 성도는 제사법을 통해 자신의 죄의 심각
성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
다.

(3) 세 가지 절기와 예배의 의무

- 언약 법전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지키라고 명시했습니다
(출 23:14-17).
-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
급하심을 기념하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교제해야 할 영적인 의무를 부
여합니다.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은 과거의 구
원을 기억하고,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며, 미래
의 소망을 확신하는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절기들처럼 감사와 기념, 그리
고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출 23:14] 너는 매년 삼
차 내게 절기를 지키지
니라

[출 23:15] 너는 무교병
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빕월
의 정한 때에 칠 일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
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
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
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
라

[출 23:16] 맥추절을 지
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
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
매를 거둔이니라 수장
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
중에 밭에서부터 거두
어 저장함이니라

[출 23:17] 너의 모든 남
자는 매년 세번씩 주 여
호와께 보일지니라

나.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과의 구별

(1) 세상의 법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 언약 법전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법규와 달

리,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특별히 보상과 형벌 규례는 철저히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이루어, 복수나 잔인한 처벌을 금하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세우고자 했습니다(출 21:23-25).

- 이스라엘은 이 법전의 준수를 통해 세상의 국가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2) 언약의 준수와 하나님의 축복

- 하나님은 이 율례와 법규를 잘 지킬 때 땅의 축복과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건강을 약속 하셨습니다(출 23:25-33). 이는 율법 준수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의 고백임을 보여줍니다.
- 성도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영적 육체적 복을 누리게 됨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 언약의 확증과 피 뿌림 <다임>

가. 언약의 체결과 증보자의 역할

[출 21: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출 21: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출 21:25] 대운 것은 대운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출 23:25]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출 23:26]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출 23:27]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출 23:28]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출 23:29]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일년 안에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1) 언약서 낭독과 순종의 맹세

- 모세는 언약 법전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고, 백성들은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출 24:7)라고 응답하며 언약의 내용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이 낭독과 응답은 이 언약이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쌍방 간의 합의와 동의를 통한 계약임을 보여줍니다. 언약의 축복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었으며, 불순종은 계약의 파기로 인한 저주와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명과 함께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뵈옵고 하나님을 먹고 마셨습니다(출 24:9-11). 이 식사 교제는 언약 공동체의 화해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2) 피 뿌림 <다임>과 영원한 언약

- 모세는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출 24:6, 8)라고 선언했습니다. 피는 히브리어 <다임>이며, 이는 생명과 속죄의 상징입니다.
- 피 뿌림은 이 언약이 생명을 걸고 맺어진 아주 엄숙한 계약임을 확증하며, 피의 보호 아래서

[출 23:30]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 내리라

[출 23:31]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출 23:32]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출 23:33]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나의 올무가 되리라

[출 24:7]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 24:9]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출 24:10]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출 24:11]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약의 피 언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새 언약(눅 22:20)을 미리 보여줍니다.

- 성도는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보장되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나. 시내 산에서 이루어진 영광의 계시와 언약의 증표

(1)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격한 하나님

-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뵈었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발 아래 맑고 푸른 보석이 깔린 것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출 24:10).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죄인인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계시되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었습니다. 이 목격은 언약의 중보자인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졌음을 확증하며, 그들의 증언을 통해 백성들이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이 식사 교제와 목격은 언약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와 권위를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보고 먹고 마셨더라

[출 24:6]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출 24:8]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눅 22: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출 24:10]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2) 모세의 산 위 체류와 증거판 수여

-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40일 동안 시내 산 위에 머물렀습니다(출 24:18). 이 기간 동안 모세는 장막의 설계와 예배에 관한 모든 세부적인 지시를 받았으며, 마침내 "돌판 곧 율법과 계명이 기록된 증거판"(출 24:12)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 이 증거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물리적 증거이자,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삶의 규범이 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었습니다. 모세의 40일간의 체류는 그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참된 중보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합니다.

[출 24:18]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사십 일 사십 야를 산에 있으니라

[출 24: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10 장

/

성막의 건축 양식

제 10 장 성막의 건축 양식

도입내용

(출 25-27장) 성막은 하나님이 죄인 된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려는 하늘의 설계도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구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희생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는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성도의 삶 역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1. 성막의 설계와 지성소의 기구

가. 성막 재료의 영적 의미와 봉헌

(1) 자발적 예물과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응답

- 하나님은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이스라엘 백성의 자발적인 예물을 통해 모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출 25:2).
-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등 다양한 재료

[출 25: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들은 각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은 신성(神性)과 영원성을, 청색은 하늘을, 홍색은 희생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 성막 재료의 자발적인 봉헌은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합당한 반응임을 보여줍니다. 성막은 인간의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어 사용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출 25:9)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식양’은 히브리어 <타브니트>이며, 이는 ‘모형’ 또는 ‘본’을 의미합니다.

[출 25:9]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2) 언약궤와 속죄소 그리스도의 예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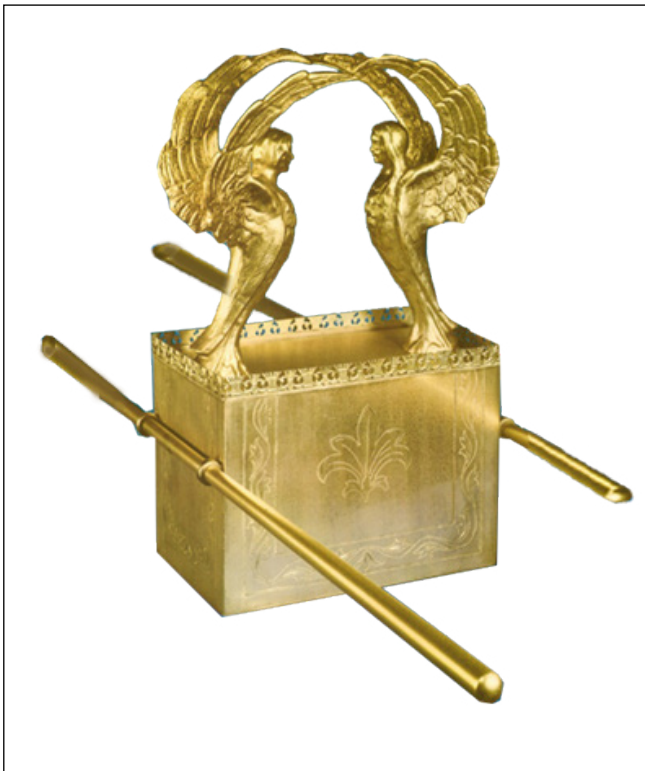
- 언약궤는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 위치했으며,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율법), 만나를 담은 항아리(공급), 아론의 싹난 지팡이(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히 9:4).
- 이 세 가지는 모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에 대한 증거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궤 안에 보존되었습니다.
- 언약궤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백성을 통치

[히 9:4]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싹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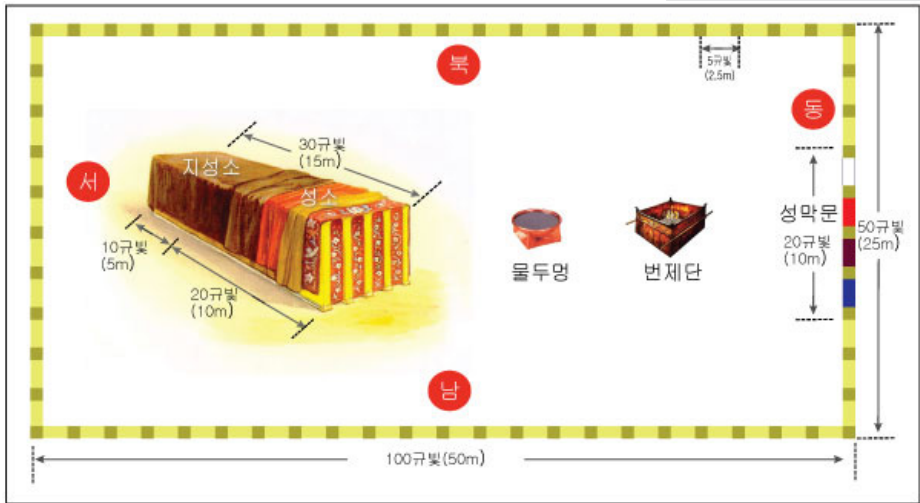
하시고, 은혜로 그들을 공급하시며, 권위로 인도하신다는 언약적 통치(Rule)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위에는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Covering)가 있었습니다(출 25:17).

- 속죄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은혜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곳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화해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출 25:17]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이 규빗반, 광이 일 규빗반이 되게 하고



나. 성막 구조의 신학적 의미와 하나님의 임재



(1) 세 부분으로 나누인 성막 구조와 중보자

- 성막은 성막 뜰, 성소, 지성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출 26:33), 이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 성막 뜰은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며, 성소는 교제와 예배의 장소였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 이 세 공간을 나누는 휘장과 문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출 26:33]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드리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안에 들여 놓으라 그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 이 장벽들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써 친히 길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어, 죄인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음을 예표합니다(히 10:19-20).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2) 언약궤 위의 임재와 쉼기나 영광

-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는 순금으로 만든 두 그룹(Cherubim)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었는데(출 25:18-20),
- 이 그룹들 사이의 공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였습니다. 이 임재의 구름을 쉼기나(Shekinah) 영광이라 부릅니다. 성막은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 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출 25:8).
- 성막의 존재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임마누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출 25:18]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처서 만들되

[출 25:19]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출 25:20]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출 25:8]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2. 성소의 기구와 뜰의 제단

가. 떡상과 등잔대 생명과 빛의 공급

(1) 떡상과 진설병의 예표

- 성소 안에 놓인 떡상에는 항상 열두 개의 진설병이 놓여 있었습니다(출 25:30).
-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성도는 그리스도를 영적인 양식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유지해야 합니다(요 6:35).
-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8:12)와 성령의 깨우침을 상징합니다(출 25:31).
-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었으므로, 이 등불은 오직 하나님의 조명하심만이 영적인 길을 인도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의지하여 거룩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출 25:30]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요 6: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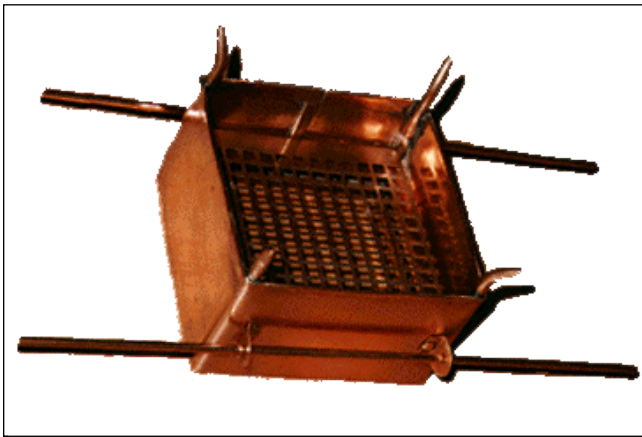
[출 25:31]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밀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2) 번제단과 죄의 처리

- 성막 뜰 입구에 있는 번제단은(출 27:1)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짐승이 피를 흘리고 불태워지는 곳이었습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죄의 심판과 희생을 통과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가장 분명하게 미리 보여주며, 성도는 매일의 삶

[출 27:1]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오 규빗 광이오 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삼규빗으로 하고

에서 이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를 태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번제단은 성막의 가장 밖에 있었으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는 구원의 시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대속적인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영적인 순서입니다.



나. 물두멍과 분향단 정결과 기도의 의미

(1) 물두멍을 통한 정결 의식

- 번제단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위치한 물두멍은(출 30:18)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 제사장은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물로 씻어야 했으며, 씻지 않고 들어갈

[출 30:18]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경우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예배와 사역에 앞서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물두멍의 씻음은 성도의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령의 물과 말씀으로 말미암는 지속적인 회개와 정결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깨끗해졌으나, 매일 세상에 노출된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씻어야 합니다.



(2) 분향단을 통한 중보적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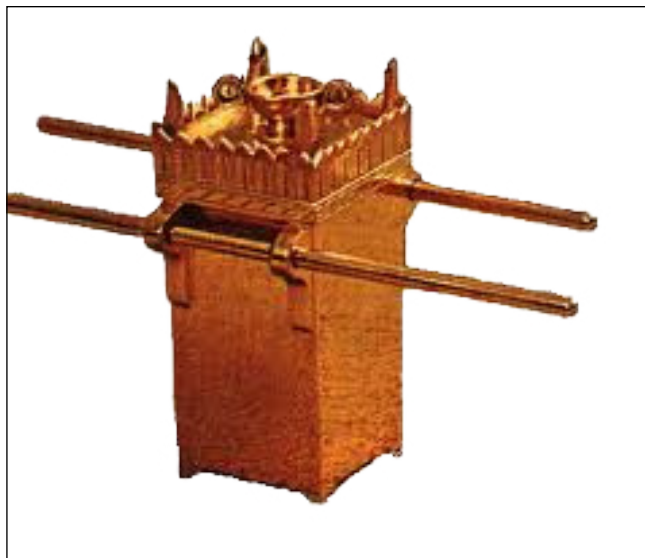
- 성소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휘장 앞에 놓인 분향단에서는(출 30:1) 아침저녁으로 향을 피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출 30:1]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 목으로 만들되

- 이 향연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며(시 141:2, 계 5:8),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열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분향단은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배치되어 있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영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141:2]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계 5:8]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11 장

/

제사장 위임식과 의복

제 11 장 제사장 위임식과 의복

도입내용

(출 28-29장) 제사장은 성막 봉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 주는 거룩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옷과 제사장 임명식은 장차 오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중보 사역을 미리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모든 의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가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도는 제사장의 옷에 담긴 상징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1.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과 중보

가. 대제사장의 에봇과 흉패

(1) 백성을 가슴에 품은 중보자

- 대제사장의 에봇과 가슴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있었습니다 (출 28:29).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깨 (힘)에 메고 가슴(사랑)에 품고 하나님 앞에

[출 28:29]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나아갔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짐과 죄를 짊어지시고, 사랑과 긍

홀로 영원히 중보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예표입니다.

- 홍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백성에게 그 답을 전달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출 28:30). 이는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근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출 28:30]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홍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가 스승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돌지니라



(2) 거룩한 중재자의 본질

- 대제사장의 모자 앞에 붙인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출 28:36)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중보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거룩함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 제사장의 거룩함이 백성의 허물을 덮어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깨끗함만이 죄인인 성도들의 예배와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

[출 28:36]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오시게 합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나. 제사장의 의복에 담긴 구속의 예표

(1) 세마포와 긴 옷의 순결성

-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이 입는 의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는 가는 실로 짠 세마포였습니다. 이 세마포는 순결함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 제사장은 가장 먼저 이 순결한 옷을 입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순수한 마음과 정결한 행위가 필수적임을 가르쳤습니다.
- 제사장의 긴 옷은 땅에 끌리지 않도록 바지(속옷)를 입어 몸을 가리게 했는데(출 28:42), 이는 제사장이 자신의 부끄러운 육체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단정함과 경건함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세마포)을 입고서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2) 금방울과 석류의 조화와 열매

- 대제사장의 겹옷 아래단에는 돌아가며 금방울과 석류가 번갈아 달려 있었습니다(출 28:33-35).

[출 28:33]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출 28:34]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출 28:35]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소리를 내어 그의 생존과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했으며, 소리가 멈춘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말씀의 선포(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할 중보자의 사명과 책임을 상징합니다. 석류는 풍성한 열매와 성도의 삶을 상징합니다. 금방울과 석류의 조화는 사역자의 선포(방울)가 반드시 성령의 열매(석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2. 제사장 위임식과 성결

가. 피의 정결과 기름부음의 상징

(1) 위임식의 피와 정결

- 제사장 위임식은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 등 복잡한 제사 의식과 함께 피를 바르고 씻는 정결 의식을 포함했습니다(출 29장). 이는 제사장 직분이 인간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피를 통한 속죄와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 특히 피를 귀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른 것은(출 29:20) 제사장의 온 삶(듣는 것, 일

[출 29:20]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바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바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하는 것, 걷는 것)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
져야 함을 상징합니다.

-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관유를 부어 기름 부
음을 받는 행위는(출 29:7) 그들이 성령의 능
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
록 구별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출 29:7] 관유를 가져다
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
고

(2)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하나님과의 교제

-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막에
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어린양을 드리는 상
번제(常燔祭)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출
29:38-42). 이는 백성들의 매일 짓는 죄에 대
해 끊임없이 용서가 필요하며, 하나님과의 관
계 유지가 이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을 보여줍니다.
- 이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상
번제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회막(성막) 문
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
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출 29:43)라고 약속하셨습
니다.
- 성도는 매일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
의 희생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출 29:43]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
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
라

를 경험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 구별된 거룩함과 속죄의 은혜

(1) 위임 기간의 구별된 삶의 요구

- 제사장 위임식은 칠 일 동안 지속되었으며(출 29:35),
- 이 기간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정된 거룩한 장소에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 이 칠 일은 제사장들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오직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에 전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제사장 직분이 세상적인 직업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소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죄악된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 속전(贖錢)과 생명의 속량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인구 조사)를 할 때,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들로부터 생명을 속하는 대가로 속전(贖錢), 곧 은 반 세겔을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출 30:11-16).

[출 29:35] 너는 내가 무릇 네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칠 일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출 30:10] 아론이 일년 일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일년 일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출 30: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 30:12]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 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출 30:13]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이십 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출 30:14]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이십세 이

- 이 속전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차별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은 동일하게 죄로 인해 속량(대속)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이 속전은 구원받은 백성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물질적 증거였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명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속량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출 30:15]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출 30:16]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12 장

/

성막의 기구와 기술자

제 12 장 성막의 기구와 기술자

도입내용

(출 30-31장) 성막에는 분향단, 물두멍, 관유 등 봉사를 위한 여러 기구들이 있었는데, 이는 성도의 영적인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기도, 정결,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기술자들(브살렐과 오홀리압)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챕터는 성막 기구들의 영적 의미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재능까지도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진리를 깊이 다룹니다.

1. 기도의 향과 성결의 물

가. 분향단과 끊이지 않는 기도

(1) 중보의 향과 영적 순종

-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계 5:8)를 상징합니다(출 30:7-8).
- 이 향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재료

[출 30:7]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사를지며
[출 30:8] 또 저녁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앞에 끊지 못할지며

로만 만들어져야 했는데, 이는 성도의 기도가 인간의 욕심이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드러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 성도의 삶은 이 향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 드러지는 간구와 감사로 가득 차야 합니다. 성막 기구와 제사장의 위임식에 사용된 관유(거룩한 기름)는(출 30:25)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별(구별)을 상징합니다.
- 이 기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었는데, 이는 성도와 그가 가진 모든 재능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서만 사용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출 30:25]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2) 향료의 거룩함과 예배의 엄격성

- 하나님은 분향단에 사용할 향(향연)을 만드는 특정한 향료의 배합을 지정하셨으며(출 30:34),
- 이 향과 위임식에 사용된 관유를 다른 용도로 만들거나 사용할 경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엄격히 경고하셨습니다(출 30:37-38). 이는 하나님께 드러지는 예배와 기도가 인간의 임의대로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규례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강

[출 30:3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출 30:37]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말라

[출 30:38] 무릇 맡으려고 이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조합니다.

- 성도는 예배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세속적인 욕심이나 편의를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의 명령을 따라 순결하고 엄격하게 구별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 물두멍과 매일의 정결

(1) 매일의 정결과 말씀의 씻음

-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는 물두멍은 제사장이 봉사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었습니다(출 30:20). 이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세상의 죄악으로 더러워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매일 깨끗하게 해야 할 거룩해짐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 번제단의 피가 구원의 시작이라면, 물두멍의 물은 성화(거룩해짐)의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출 30:21).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되며,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아야 함을 경고합니다.

[출 30:20]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출 30:21]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2) 놋으로 만든 물두멍과 자기 성찰

- 물두멍은 전적으로 놋으로 만들어졌으며(출

30:18), 특별히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이 자발적으로 드린 놋 거울을 녹여 만들었습
니다(출 38:8).

- 거울은 자신을 비추어 보는 도구이듯이, 물두
멍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와 허물을
성찰하고 점검하게 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물두멍을 통과하는 행위는 십자가의 구원(번
제단) 이후에도 성도가 매일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회개를 통
해 성화의 여정을 걸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 성도는 세상의 거울 대신 말씀의 거울에 자신
을 비추어 정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출 30:18] 너는 물두멍
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
을 담으라

[출 30:8] 또 저녁때 등
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앞에 끊지 못할
지며

2. 성령의 지혜와 동역

가.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은사

(1) 성령의 은사와 예술적 재능

- 하나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
러 가지 재주"(출 31:3)를 주셔서 성막 건축의
섬세하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
다.
- 이는 성령의 은사가 설교나 가르치는 일에만

[출 31:3]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국한되지 않고, 건축, 예술, 기술 등 모든 분야에 부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적인 봉사에 사용됨을 보여줍니다.

- 성도는 자신의 모든 재능을 성령의 선물로 여기고 주님께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2) 공동체적 동역의 중요성

- 브살렐과 오홀리압 외에도 하나님은 '마음에 지혜로운 모든 사람'을 불러 성막 건축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출 31:6).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한두 사람의 특별한 능력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다양한 은사와 자발적인 동역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작은 재능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출 31:6]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만들게 할지니

나. 성막 건축의 최종 완성과 헌납

(1) 정확한 이행과 건축의 완성

-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 건축을 진행했습니다(출 36:1).
-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모든

[출 36:1]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와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것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행했습니다(출 39:32, 42). 이는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정확한 이행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성도의 사역과 봉사 역시 자신의 의나 자량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2) 모세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쁨

- 성막 건축이 모두 완성된 후, 백성들은 모든 재료와 기구들을 모세에게 가져와 점검받았습니다.
- 모세는 모든 것이 여호와와 명령대로 된 것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출 39:43)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은 성막 건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과 재능을 통해 시작되고 완성되며, 그 완성된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 성도는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때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출 39:32]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출 39:43]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13 장

/

금송아지 사건과 중보

제 13 장 금송아지 사건과 중보

도입내용

(출 32-33장)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는데, 이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인간의 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모세의 희생적인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구원 역사를 이끄심을 드러냅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만이 우리를 진노에서 건질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1. 금송아지 숭배와 언약의 파괴

가.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함과 인간의 연약함

(1) 금송아지 숭배의 본질

-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출 32:1)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집

[출 32:1]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뎈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트의 풍요신 아피스와 여호와 신앙을 섞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 금송아지 숭배는 보이는 것에 안심하고 싶고, 신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 이 금송아지 숭배를 보고 분노한 모세는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출 32:19).
- 돌판이 깨진 것은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파괴했음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죄인에게 심판과 진노를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출 32:19]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2) 지도자의 부재와 공동체의 타락

-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지도자의 부재는 백성들의 영적 혼란과 타락을 가속화시켰습니다.
- 백성들은 모세가 약속을 저버리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여겨 불평했고(출 32:1), 그들의 불안감은 우상 숭배라는 극심한 죄로 이어졌습니다. 지도자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그들의 금불이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출 32:4).
- 이 사건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공동체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지도자의 나약함과 타협은 공동체 전

[출 32:1]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뎠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 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지못함이라

[출 32:4]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하는지라

체를 죄악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

(1)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위기

-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고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출 32:10).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와 결코 함께할 수 없으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준엄한 공의를 보여줍니다.
-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그분의 절대적인 거룩함에서 나오는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세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출 32:32)라고 기도하며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대신 빌었습니다.
- 모세의 이 중보 기도는 죄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중보를 가장 분명하게 미리 보여줍니다.

[출 32:10] 그런즉 내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 32:32]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2) 모세의 기도와 임재의 회복

-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너무 목이 곧은 백성이므로 당신의 사자(천사)를 보내 함께 가게 할 뿐, 자신은 함께 가지 않

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출 33:3).

- 그러나 모세는 천사의 인도보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출 33:15)라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모세는 더 나아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출 33:18)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는 모세의 영적 갈망의 절정이었으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순수한 열망이었습니다.
- 하나님은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앞에서 당신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을 선포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출 33:19-23).

[출 33:3]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출 33:15]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출 33:18]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 33:19]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 33:20]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 33:21]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위에 섰으라

[출 33:22]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

2. 언약의 재갱신과 새로운 시작

가. 두 번째 언약서와 하나님의 성품

(1) 새로운 돌판과 언약의 재확립

- 금송아지 사건으로 첫 번째 돌판이 깨진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돌판 두 개를 깎아 가지고 산에 오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출 34:1).
- 이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십계명을 기록하심으로써, 파괴된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재갱신되었음을 선포하셨

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언약이 파기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의지는 변함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 새 돌판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2)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선포

-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지나가시며 자신의 성품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 인자를 천 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출 34:6-7). 이 선포는 하나님의 공의(심판)와 사랑(자비와 용서)이 상호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계시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진술 중 하나입니다.
- 이 성품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기 이전에, 먼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출 33:23]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 34: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출 34: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 34:7]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을 자녀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나. 재확인된 율례와 광채 나는 모세의 얼굴

(1) 순종해야 할 재확인된 율례

-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

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주요 율례들, 즉 우상숭배 금지, 안식일 준수, 세 절기 준수 등의 규정을 재확인하셨습니다(출 34:11-26). 이는 구속받은 백성이 죄의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거룩한 순종의 삶이 언약 공동체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조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용서는 방종의 이유가 아니라, 더욱 철저한 순종과 거룩함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2)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광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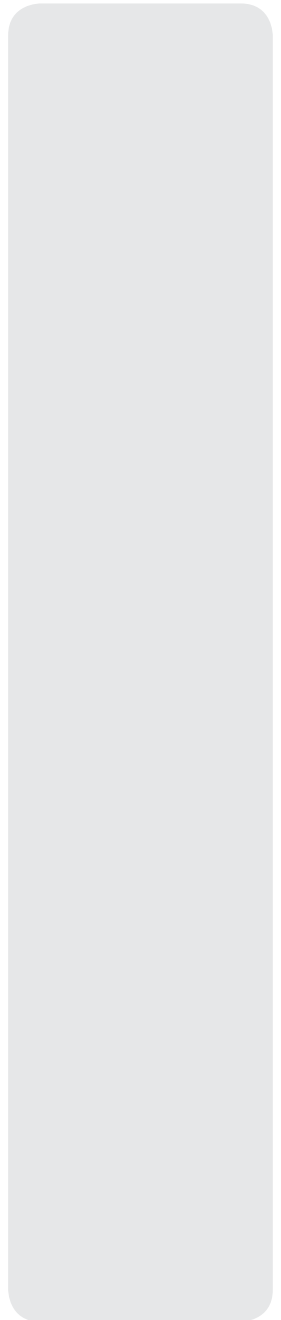
-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고 시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가까이 오기를 무서워했습니다(출 34:29-30).
- 이 광채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대면했음을 보여주는 영광의 증거였습니다. 이 광채는 율법을 받은 모세의 중보 사역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셨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 그러나 이 광채는 점차 사라지는(고후 3:7)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모세의 중보와 율법의 영광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출 34:29]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타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출 34:30]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를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고후 3:7]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과 새 언약에 의해 대체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14 장

/

언약의 갱신과 봉헌 준비

제 14 장 언약의 갱신과 봉헌 준비

도입내용

(출 34-36장)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을 파기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통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수여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성품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깨뜨린 큰 잘못을 경험한 후, 성막 건축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예물을 드리는 회개에 걸맞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챕터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그 자비에 대한 성도의 합당한 회개와 헌신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1. 언약의 갱신과 모세의 광채

가. 여호와와의 성품 선포와 언약 재확인

(1)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과 언약의 재확인

-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앞에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

나님이로라”(출 34:6)고 당신의 성품을 알려 주셨습니다.

-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구원 역사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용서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심으로써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출 34:1, 28). 이는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증명합니다.
-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심으로써(출 34:11-16),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순종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2) 모세 얼굴의 광채 <카란>

-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는데(출 34:29), 이 빛은 히브리어 <카란>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비친 것입니다.
- 이 빛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했음을 보여주는 영적인 증거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의 광채를 두려워하므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출 34:33-

[출 34: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 34: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출 34:28]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 일 사십 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출 34:29]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35). 이는 율법의 영광이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영원하고 참된 영광에 비하면 일시적이고 흐릿한 것임을 보여줍니다(고후 3:13).

- 성도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광을 영원히 세상에 비추어야 할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 광채와 수건의 영적 의미

(1) 율법의 한계와 그리스도의 영광

-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는 영광스러웠지만, 결국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린 것은(출 34:33) 백성들로 하여금 사라지는 영광의 끝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구약의 율법과 모세의 중보가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며, 그 영광이 영원하고 참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새 언약의 영광에 비해 열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고후 3:7-11).
-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출 34:33]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출 34:34]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출 34:35]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고후 3:13]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같이 아니하노라

[출 34:33]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고후 3:7]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고후 3:8] 하물며 영의

(2) 백성에게 전파된 언약의 말씀

- 모세가 수건을 벗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할 때였습니다(출 34:34). 광채를 가렸던 수건을 벗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야 함을 상징합니다.
- 모세는 백성에게 내려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는 지도자의 권위와 영광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보적인 사역에 봉사할 때만 의미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고후 3:9]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고후 3:10]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니

[고후 3:11]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출 34:34]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2. 성막 건축을 위한 자원하는 예물

가. 자발적인 헌신과 회개의 열매

(1) 회개의 열매로서의 헌신

-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약속을 깨뜨렸던 큰 잘못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재료를 모으는 일에 스스로 참여했습니다(출 35:21).
- 마음속에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이 성막 재료를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데, 너무 많아서 모

[출 35:21]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출 36:5-7). 이는 참된 회개가 겉으로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헌신으로 이어진다는 영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 성도는 자신의 물질과 시간, 재능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려는 스스로 원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헌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2)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일꾼들

-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여 성막의 모든 정교한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출 35:30-35).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인간의 단순한 기술이 아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 성도는 자신의 일상적인 기술이나 직업까지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거룩한 재능으로 구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는 구속의 역사 속에서 가장 정교한 봉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출 35:30]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출 35:31]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출 35:32]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일하게 하시며

[출 35:33]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였고

[출 35:34]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출 35:35]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로 수 놓은 일과 짠 일과 그 외에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나. 안식일 준수와 성막의 완공

(1) 안식일 준수 명령의 재강조

-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안식일을 지킬 것을 엄격하게 명령하셨습니다(출 35:2-3).
- 성막을 짓는 일이 아무리 거룩한 일일지라도,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중단해야 함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순종이 성막 건축이라는 사역 자체보다 더 우선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이나 봉사보다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 성도는 세상의 어떤 급한 일이나 봉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룩한 의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출 35:2] 옛새 동안은 일하고 제칠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출 35:3]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2) 성막 봉헌과 하나님의 영광 임재

- 성막이 마침내 완공되어 정해진 날에 세워졌을 때(출 40:17), 여호와와 영광이 구름 가운데 그 회막에 가득했습니다(출 40:34).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순종과 헌신으로 지은 그들의 처소(성막)를 기쁘게 받으시고, 당신의 임재를 통해 언약을 확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 성막은 물리적인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출 40:17] 제 이년 정월 곧 그 달 초일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출 40:34]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는 영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이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 성막의 완공은 구속받은 백성과 하나님이 다시 완전히 연합하게 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5 장

/

성막의 완성

제 15 장 성막의 완성

도입내용

(출 37-40장)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들은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규정들이 모세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 실행되고 완성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죄악된 인간들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상 왕좌로 완성됩니다. 마침내 성막이 완성되어 바쳐질 때 여호와와 영광 <카보드>가 가득하게 임하는 것은, 구원 역사의 최종 목표인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장엄한 결론입니다. 이 챕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불러오는지를 깊이 있게 가르칩니다.

1. 성막의 완성과 준행

가. 말씀대로의 철저한 준행

(1) 순종의 완성

- 성막 제작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출 39:32)라는 표현이 스무 번 가까이 반복됩니다. 이는 모세의 순종이 단순히 시키는 대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출 39:32]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이고 완벽한 복종이었음을 강조합니다.

- 참된 예배의 장소는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만 지어질 수 있습니다. 모세의 순종은 성막이 하늘의 모형대로 지어졌음을 보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언약궤, 떡상, 등잔대, 번제단, 제사장의 의복 등 모든 성막 기구와 구성 요소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출 37-39장).
- 이 완벽한 제작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실현된다는 구속사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2) 성막의 설치와 성별

- 모세는 성막의 모든 구성 요소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첫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세웠습니다(출 40:2, 17).
- 이 설치 시점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진행됨을 보여줍니다.
- 성막이 설치되자 모세는 모든 기구와 성막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성별했습니다. 이는 성막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위한 공간

[출 40:2] 너는 정월 초일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출 40:17] 제 이년 정월 곧 그 달 초일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으로 완전히 구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 씻기고 의복을 입히고 기름을 발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출 40:12-15).

나. 성막 설치와 영적 순서

(1) 성막 기구의 순서적 배치

- 모세는 성막의 각 기구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확한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출 40:18-33).
- 언약궤는 지성소에 두어 하나님의 통치권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고, 떡상과 등잔대는 성소에 두어 생명의 양식과 빛의 공급을 나타냈습니다.
- 이 순서적 배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질서를 가르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희생), 물두멍(정결), 성소(교제)를 거쳐 지성소(임재)에 이르러야 함을 보여줍니다.
- 성도는 이 순서에 따라 십자가의 희생과 매일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출 40:12]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출 40:13]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출 40:14]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겹옷을 입히고

[출 40:15]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출 40:18]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출 40:19]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출 40:20] 그가 또 증거판을 껍데기에 넣고 채를 껍데기에 꿰고 속죄소를 껍데기에 두고

[출 40:21] 또 그 껍데기를 성막에 들어 놓고 장을 드리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으니 여호와께서 모

(2) 지도자 모세의 최종적인 역할

-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위임하고, 모든 기구를 성별하는 일을 직접 감당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중보자로서 받은 모든 계시와 명령을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완성하는 마지막 행위였습니다.
- 모세는 이제 단지 율법의 전달자를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거룩한 공간을 확립하고 예배를 정착시킨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 모세의 순종적인 행위는 성막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한 영적인 기념물임을 확증했습니다.

2. 봉헌과 영광의 임재

가. 구름과 영광 <카보드>의 충만

(1)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 성막이 완성되고 모세가 모든 일을 끝마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출 40:34)라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출 40:22]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편으로 장 밖에 상을 놓고

[출 40:23]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출 40:24]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출 40:25]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출 40:26]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장 앞에 두고

[출 40:27]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출 40:28] 그가 또 성막 문에 장을 달고

[출 40:29]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출 40:30]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출 40:31]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 이 영광은 히브리어 <카보드>이며,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장엄한 나타나심을 눈으로 보여 줍니다. 성막 봉헌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왕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겠다는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 이 영광으로 인해 모세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은혜를 보여 줍니다.

[출 40:32]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대로 되니라
[출 40:33]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팔하였더라

[출 40:34]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2) 임재의 시각적 증거 구름과 불 기둥

-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으며, 이 구름은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출 40:38).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동행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실제적인 능력임을 시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영적인 의무를 갖습니다.

[출 40:38]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나. 영광의 충만 성소의 완성과 목적

(1) 성막 봉헌의 최종적인 목적

- 성막 봉헌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구속 역사를 완성하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통치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2) 성령의 임재와 구속사의 완성

- 구약의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어 오심을 통해 충만하게 나타났으며(요 1:14),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거하심으로써 구원 역사는 완성되어갑니다.
-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 궁극적으로 성도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의 기념비였습니다.
- 성도는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전 3:16)임을 깨닫고, 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출애굽기 영맥풀이

초판 발행 2015. 11. 15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7348-2300(이안나목사)
홈 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초강추!
CHANCE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